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문화적 역량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과 책임감의 매개효과

권종선

단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강의전담 조교수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connectedness and responsi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Cultural competency on Nursing Students

Jong Sun Kwon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Dankoo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문화적 역량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책임감의 매개효과를 조사하여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C지역에 위치한 2개의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207명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이 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셀프리더십,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책임감은 정적 상관관계로 유의했으며,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책임감은 정적 상관관계로 유의했다. 또한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책임감은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문화적 역량관계에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셀프리더십,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책임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 전략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지지적인 교과과정운영이 필요하다.

주제어 : 셀프리더십, 문화적 역량,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책임감, 매개효과

Abstract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connectedness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relationship with self-leadership and cultural competency on nursing students. **Method:**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207 nursing students in two college located in C province.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WIN 24 program. **Result:**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self-leadership, social connectedness, social responsibility, cultural competency. Social connectedness and responsibility showed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cultural competency. **Conclusion:** To enhance nursing students' cultural competency, it is necessary to develop effective strategies and education program to enhance self-leadership, social connectedness, social responsibility.

Key Words : Self-leadership, Social connectedness, Social responsibility, Cultural competency, Mediating effect

1.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외국인 거주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다문화란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등 한사

1.1 연구의 필요성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reseach funds of the Dankook university in 2018.

*Corresponding Author : Jong Sun Kwon(kwonjs57@dankook.ac.kr)

Received June 22, 2018

Revised August 27, 2018

Accepted September 20, 2018

Published September 28, 2018

회의 주요한 행동양식이나 상징체계의 다양성을 말한다 [1].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국내 체류외국인은 205만 명으로 매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2], 2009년 의료법 개정과 더불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와 관련하여, 2009년 141개국 6만 명의 환자에서 2014년 191개국 26.7만 명의 외국인환자가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2009년 이래 외국인환자의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3]. 이러한 임상현장에서의 다문화 대상자의 증가는 문화의 다양성과 더불어 대상자와 간호사간의 문화적 차이를 가져와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인식, 건강관련 행위와 태도, 의료체계 내에서의 의사소통, 돌봄에 대한 의사결정에도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4]. 따라서 간호사는 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상자의 건강과 안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문화에 대한 인식과 문화적 지식에 기초하여 다른 문화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민감성을 가지고 대상자의 문화에 적절한 임상간호기술을 적용하는 실무능력인 문화적 역량[5]을 갖추어야 한다.

간호사를 준비하는 간호 대학생 역시 임상실무현장에서 문화적 역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수준은 낮은 수준이며 교육 요구도는 높은 수준이다[6,7]. 국내 간호교육자들은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8], 간호 실천 영역에서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간호 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 향상을 위한 교과과정이 실천되고 있으나 다문화 교육을 개설한 학교는 2011년 총 151개 대학 중 18.7%에 불과해[9]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간호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관한 국내연구는 주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이며 외국방문경험, 거주경험, 외국인과의 교류경험, 외국어 구사능력, 다문화교육 경험이 주요 영향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9-12]. 문화배경이 다른 대상자를 간호할 기회가 증가하는 다문화 임상현장에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경험도 중요하지만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개인특성 또한 중요하다. 간호업무는 환자간호업무 외에 간호과정 수행요인, 조직구성원으로서의 태도요인, 문제해결과 자기개발을 위한 요인을 포함하며 간호업무에 필요한 개인특성중 하나가 창의적 성향을 기반으로 자신에게 영향력을 미쳐 업무역량을 변화시키는 셀

프리더십이다[13].

최근 의료계는 다문화 대상자의 증가, 건강개념의 변화와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면서 간호사는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즉각적 대처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많아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필요하며, 환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간호사 개개인은 조직을 대표할 수 있는 리더로서 조직에 대한 일체감과 적극적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14]. Fiedler와 Garcia[15]는 조직의 생존과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리더십이며 특히 간호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셀프리더십은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통적 리더십과 달리 누군가의 지시 없이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스스로가 능력을 갖도록 촉진하는 과정으로 조직구성원의 업무에 대한 열정을 높이며, 효과적 인간관계를 이끄는 리더의 기본자질이다[16]. 셀프리더십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환경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의사결정시 이것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능력인 행동중심적 전략과 자신의 생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하고 올바른 사고를 확립하는 건설적사고 전략, 자신의 일이나 활동에서 진정한 보람을 찾아 자기결정감과 유능감을 증가시키는 내적 보상인 자연적보상 전략으로 구성된다[17]. 셀프리더십은 개인의 효과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자율적 행동과 인지 전략이며[17]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18],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개인 직무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쳐 간호서비스에서도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13,19-21]. 따라서 셀프리더십이 강화되었을 때 개인의 직무역할수행에 있어 능숙도와 적응도, 진취도의 증가를 가져와[21] 다문화대상자 간호에서도 문화적 역량을 증가시켜 효율적 간호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리더십이 집단에 미치는 효과는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리더가 목적 달성을 위해 하는 행동들과 관련이 있다[22]. 대학생시기에 중요하게 나타나는 심리사회적 발달적 변화는 대인관계에서 남을 존중하며, 이해와 욕구충돌 시 양보하거나 타협할 줄 알고, 자기이익을 위해 타인을 해롭게 하지 않으며, 이웃 간 화목과 조화를 도모하는 등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재로 성숙하는 개인의 사회적 행동 능력이다[23]. 이는 셀프리더십을 통한 영향력 행사를 반영하기 위한 행동으로 사회적 유대감과 책임감을 들 수 있다[24].

사회적 유대감은 개인이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가족, 친구, 동료와 같은 가까운 관계부터, 주변 인물, 낯선 이들과의 소통, 조직과의 관계를 통해 소속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주관적 인식[25]으로 친숙하고 지지적 방법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본이다.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타 의료인과 협조하여 팀 접근 돌봄을 수행한다. 사회적 유대감은 모든 관계적 경험들이 모여 자기감각으로 통합하면서 형성된다[25]. 사회적 유대감이 높은 개인은 문화지능이 높으며[26], 사회 집단에 참여할 때 대인관계의 차이를 존중하고 타인의 마음을 지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25].

사회적 책임감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 구성원의 복지에 관심과 의무감을 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긍정적인 태도이며 [27], 다른 사람과의 민주적 관계에 뿌리를 둔다. 즉 다른 사람과의 유대감, 상호주의에 근간하며, 잘 모르는 다양한 사람과의 상호작용, 평등, 존중, 신뢰에 뿌리를 두므로[28]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시켜 건전한 리더십 향상에 필수적이며 [29], 간호전문직의 특성인 이타주의(타인을 위해 살고자 하는 비이기적 욕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17].

리더십이란 리더가 일정한 상황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며 간호는 사람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대상자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어 내는 리더십 역량이 필요하다[22]. ‘효과적 리더십은 간호의 생산성과 질에 영향을 미쳐 간호에 있어 중요하며, 리더십의 효과는 리더십의 유형과 상황과의 관계에 따라 결과가 나타난다’는 ‘상황적합성이론’을 제시한 Fiedler는 리더의 유형(원인변수)이 집단에서 효과(결과변수)를 나타낼 때 리더와 구성원과의 관계(상황적 매개변수) 즉 구성원이 리더를 어떻게 보느냐가 작용함을 제시했다[15].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셀프리더십을 갖추고, 자신의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책임감을 어떻게 인식하고 간호를 수행하느냐에 따라 다문화 대상자 간호에서 문화적 역량을 발휘하여 양질의 간호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는 Fiedler의 리더십효과성 이론을 적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문화적 역량 관계에서 리더의 행동목록이며, 대학생시기의 발달과업인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책임감을 매개로 이론적 틀을 구성하고자 한다.

간호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관련연구는 문화적 역량 수준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대학생 시기

의 발달적 특징인 심리사회적 요인과의 관련성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이 다문화 대상자들의 문화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간호기술을 활용하여 진인간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문화적 역량과 셀프리더십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책임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교과과정에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유대감과 책임감의 적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셀프 리더십과 문화적 역량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책임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책임감, 문화적 역량 수준을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문화경험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셀프리더십,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책임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문화적 역량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책임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문화적 역량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책임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C지역에 위치한 2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이며,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간호 대학생 3, 4학년 220명을 편의 표집 하였다. 본 표본크기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대상자 표본 수 산출 방법인 G-power3.1.3(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5%(양측), 90%power, 중간정도 효과크기(0.15), 예측변수 13 개로 계산하여 필요한 최소 표본크기는 162명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 수

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8년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시행하였으며, 각 대학의 학과장님의 협조를 얻어 연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연구목적, 설문지 및 동의서 작성방법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각 연구대상자들은 자가 보고식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작성시간은 20~25분 소요되었다. 총 220부의 설문지중 213부(97%)가 수거되었고, 미완성인 설문지 6부를 제외한 207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2.3 윤리적 고려

연구시작 전에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D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윤리심의를 거쳤으며, 대상자의 자료 수집을 위해 본 연구의 목적,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설문에 참여하는 동안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만 둘 수 있음을 알리고 설문자료는 연구목적에만 사용되며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2.4 연구도구

총 111문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으로는 문화적 역량(33문항), 셀프리더십(35문항), 사회적 유대감(20문항), 사회적 책임감(10문항), 일반적 특성(3문항), 문화경험 특성(10문항)을 포함하였다. 최종설문지를 이용하여 간호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4.1 문화적 역량

문화적 역량은 Chae[5]가 개발한 'Cultural Competence Scale for Korean Nurses'를 개발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문화적 인식 6문항, 문화적 지식 7문항, 문화적 민감성 12문항, 문화적 기술 8문항의 4개 하위영역,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화적 인식은 자신의 문화적배경과 정체성을 인식함으로써 타문화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는 것으로 그 속성은 자기인식, 문화적 다양성인식,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한 자기인식, 자신의 문화가 간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말하며, 문화적 지식의 속성은 건강신념과 건강행위, 시간, 공간, 신체접촉의 의미, 신체적, 생리적 차이점, 질병발생과 유병상태를 의미한다. 문화의 민감성은 대상자와 바람직한 상호

관계는 대상자를 진정한 동반자로 바라보아야 민감한 간호를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그 속성은 공감, 신뢰, 수용, 존중, 관심을 포함한다. 문화적 기술은 간호의 실무 기술에 초점을 두며, 그 속성은 자료수집과 신체사정 기술, 임상기술, 의사소통기술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 (1="Strongly disagree", 7="Strongly agree")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5]의 도구 신뢰도 Cronbach's α 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4이었다.

2.4.2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Houghton과 Neck[17]이 개발한 셀프리더십 측정도구 RSLQ(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를 Shin[30]이 수정·보완한 35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5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가 5점, '그렇다'가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셀프리더십의 하위영역으로는 행동중심적 전략 : 자기목표설정(5), 자기보상(3), 자기체벌(4), 자기관찰(4), 자기단서(2), 건설적사고 전략 : 성공적 수행상상하기(5), 자기대화(3), 신념과 가정분석(4), 자연적보상 전략(5) 총 3 영역 9개 하위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30]의 도구 신뢰도 Cronbach's α 는 .70-.87이었으며, 연구[19]에서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2.4.3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유대감은 Lee & Lobbins[25]가 개발한 The Social Connectedness and the Social Assurance Scales을 Lee등(2001)이 개정하고 Lee[31]가 사용한 사회적 유대감('소속과 대인 관계적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주관적 인식')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 6점 Likert 척도로 긍정문항 11문항, 부정문항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6점이며, 부정문항은 역채점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유대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연구[31]의 도구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이었고 본연구의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2.4.4 사회적 책임감

사회적 책임감은 Lee[31]가 사용한 권석만과 동료들(2010)이 개발하고 표준화한 성격강점검사(Character

Strengths Test: CST)의 하위 척도중 사회적 책임감(사회의 이익을 추구하고 보살피려는 태도인 책임의식과 충성, 협동을 반영함)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10문항, 6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책임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31]의 도구 신뢰도 Cronbach's α 는 .80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4이었다

2.4.5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가족의 경제적 수준 총 3문항을 측정하였다

2.4.6 문화경험 특성

문화경험 특성은 외국방문경험, 외국 방문 횟수, 1개월 이상 외국 거주 경험, 의사소통 가능한 외국어, 외국어 능력, 외국인과 결혼한 친인척 유무, 외국인 친구 유무, 다문화교육 참여 경험 등 10문항을 측정하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 따라 SPSS/WIN 24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문화경험 특성은 기술통계(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 셀프리더십,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책임감은 기술통계(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문화경험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와 ANOVA와 사후검정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과 관련변수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셀프리더십과 문화적 역량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책임감의 매개효과는 Baron과 Kenny[32]의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 크기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문화경험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문화경험 특성은 Table 1과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 Differences of Cultural Competency scor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 Cultural Experiences of Participants (N=20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cultural competency		
				MR(SD)	F/t	p
Gender	Male	29(14%)		5.46(±0.55)	1.627	.105
	Female	178(86%)		5.23(±0.70)		
Age	20-21	97(46.9%)	21.92 (±1.61)	5.23(±0.64)	0.552	.577
	22-23	86(41.5%)		5.33(±0.75)		
	24-29	24(11.6%)		5.21(±0.58)		
Economic Status(family)	high	56(27.0%)		5.27(±0.73)	0.331	.718
	middle	125(60.4%)		5.29(±0.66)		
	low	26(12.6%)		5.17(±0.71)		
visit a foreign country after an elementary school	>=6	24(11.6%)	2.85(±2.65)	5.22(±0.70)	1.259	.286
	1-5	142(68.6%)		5.31(±0.70)		
	0	41(19.8%)		5.13(±0.63)		
Residence Abroad more than one month	Yes	59(28.5%)		5.33(±0.75)	0.826	.410
	No	148(71.5%)		5.25(±0.65)		
Communicative Language	Yes	123(59.4%)		5.33(±0.68)	1.559	.120
	No	84(40.6%)		5.18(±0.68)		
Fluency	High(>=9)	3(1.4%)	4.58 (±1.98)	6.42(±0.23)	2.991	.003
	Low(<9)	204(98.6%)		5.25(±0.68)		
Foreigner Relatives	Yes	31(15%)		5.30(±0.75)	0.235	.814
	No	176(85%)		5.27(±0.67)		
Foreigner Friends	Yes	46(22.2%)		5.50(±0.59)	2.587	.010
	No	161(77.8%)		5.20(±0.69)		
Participating multiCultural Education	Yes	90(43.5%)		5.34(±0.77)	1.230	.219
	No	117(56.5%)		5.22(±0.61)		
Sorts of Participating multiCultural Education	Classes	69(64.5%)				
	Club activity	29(27.1%)				
	community program	9(8.4%)				

같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1.92세(±1.61)이었으며, 20-21세가 97명(46.9%), 22-23세가 86명(41.5%), 24-29세가 24명(11.6%)이었다. 성별은 여자가 178명(86%), 남자가 29명(14%)이었다.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상 56명(27.0%), 중 125명(60.4%), 하 26명(12.6%)로 응답했다.

문화경험 특성으로는 ‘초등학교 이후 외국 방문경험’이 ‘있다’가 166명으로 80.2%였고, 외국 방문횟수는 평균 2.85회(±2.65)로 방문경험이 없는 사람은 41명(19.8%)이었으며, 6회 이상은 24명(11.6%)이었다. ‘1개월 이상 외국에 거주한 경험’이 ‘없다’가 148명(71.5%)으로 많았다. 의사소통 가능한 외국어가 있는 대상자가 123명(59.4%)이었고, 의사소통 가능한 외국어로는 영어가 119명(85%)로 가장 많았으며, 일어 14명(10%), 중국어 6명(4.3%), 불어 1명(0.7%)순이었다. 외국어 능력은 10점 만점에 4.58점(±1.98)이었고 9점 이상인 대상자가 1.4%, 9점미만인 대상자가 98.6%이었다. 외국인과 결혼한 친인척이 ‘없다’가 176명(85%)으로 많았으며, 외국인 친구가 ‘있다’가 46명(22.2%), ‘없다’가 161명(77.8%)이었다. ‘다문화교육 참여 경험’이 ‘없다’가 117명(56.5%)으로 더 많았으며, 교육종류는 학교수업 69명(64.5%), 동아리활동 29명(27.1%), 지역축제 9명(8.4%)으로 나타났다.

3.2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과 관련변수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 셀프리더십,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책임감 수준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Level of Cultural Competency, Self-leadership, Social Connectedness & Social Responsibility

Variables	MS(SD)	Min	Max	Range
Cultural Competency(Total)	5.27(±0.69)	3.4	6.9	1-7
Cultural awareness	5.61(±0.81)	3.5	7.0	1-7
Cultural knowledge	4.94(±0.94)	2.4	7.0	1-7
Cultural Sensitivity	5.40(±0.82)	2.0	7.0	1-7
Cultural Skill	5.12(±0.86)	3.3	7.0	1-7
Self-leadership (Total)	3.61(±0.46)	2.0	4.9	1-5
Self-leadership(BFS)	3.67(±0.48)	2.0	4.8	1-5
Self-leadership(CTS)	3.56(±0.62)	1.9	5.5	1-5
Self-leadership(NRS)	3.50(±0.62)	1.2	5.0	1-5
Social Connectedness	4.45(±0.60)	2.8	6.0	1-6
Social Responsibility	4.42(±0.59)	2.4	5.9	1-6

* BFS-behavior focused strategies, CTS-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NRS-natural reward strategies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 평균평점은 7점 만점에 5.27(±0.69)이며, 영역별로는 문화적 인식 5.61(±0.81), 문화적 민감성 5.40(±0.82), 문화적 기술 5.12(±0.86), 문화적 지식 4.94(±0.94)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3.61(±0.46)이었고, 하위영역별로는 행동중심적 전략은 3.67(±0.48), 건설적 사고 전략 3.56(±0.62), 자연정보상 전략 3.50(±0.62)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사회적 유대감은 6점 만점에 4.45(±0.60), 사회적 책임감은 6점 만점에 4.42(±0.59)로 나타났다.

3.3 일반적 특성과 문화경험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 차이는 6쪽의 Table 1과 같다.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5.50±0.59)가 없는 경우(5.20±0.69)보다 문화적 역량이 유의하게 높았고(t=2.587, p=.010), 외국어능력이 9이상인 그룹(6.42±0.23)이 9미만인 그룹(5.25±0.68)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991, p=.003). 남자(5.46±0.55)가 여자(5.23±0.70)보다, 22-23세그룹(5.33±0.75)이 다른 연령그룹보다, 외국방문횟수가 1-5회 그룹(5.31±0.70)이 6회 이상(5.22±0.70), 없는 그룹(5.13±0.63)보다, 1개월 이상 해외거주경험이 있는 그룹(5.33±0.75)이 없는 그룹(5.25±0.65)보다, 다문화교육 경험이 있는 그룹(5.34±0.77)이 없는 그룹(5.22±0.61)보다 문화적 역량 점수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3.4 문화적 역량과 관련변수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과 관련변수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the Variables

	cultural competency (A)	self-leadership (B)	social connectedness (C)	social responsibility (D)
A	1			
B	.376**	1		
C	.357**	.332**	1	
D	.502**	.467**	.515**	1

** p<.01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유대감(r=.332, p<.01), 사회적 책임감(r=.467, p<.01)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문화적 역량과 셀프리더십(r=.376, p<.01), 사회적 유대감

Table 4.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onnectedness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Cultural Competency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Mediating) variable	B	SE	β	t(p)
1	social connectedness	constant	2.871			9.092(<.001)
		self-leadership	0.437	.087	.332	5.032(<.001)
F(p)=25.32(<.001),adj.R2=.106, Dubin-Watson=1.802						
2	cultural competency	constant	3.266			9.098(<.001)
		self-leadership	0.566		.376	5.810(<.001)
F(p)=33.75(<.001),adj.R2=.137, Dubin-Watson=1.588						
3	cultural competency	constant	2.382			5.871(<.001)
		self-leadership	0.434	.100	.290	4.356(<.001)
		social connectedness	0.298	.076	.261	3.924(<.001)
F(p)=15.39(<.001), adj.R2=.194, Dubin-Watson=1.685						
1	social responsibility	constant	2.230			7.618(<.001)
		self-leadership	0.608	.080	.467	7.553(<.001)
F(p)=57.04(<.001),adj.R2=.214, Dubin-Watson=1.879						
2	cultural competency	constant	3.266			9.098(<.001)
		self-leadership	0.566		.376	5.810(<.001)
F(p)=33.75(<.001),adj.R2=.137, Dubin-Watson=1.588						
3	cultural competency	constant	2.151			5.824(<.001)
		self-leadership	0.273	.101	.182	2.697(<.001)
		social responsibility	0.482	.078	.417	6.194(<.001)
F(p)=39.14(<.001), adj.R2=.270, Dubin-Watson=1.617						

($r=.357, p<.01$), 사회적 책임감($r=.502, p<.01$)도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3.5 셀프리더십과 문화적역량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책임감의 매개효과

대상자의 셀프리더십과 문화적 역량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책임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32]가 제안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사회적 유대감의 매개효과는 첫째, 셀프리더십(A)이 사회적 유대감(B)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beta_{BA}=.332, p<.001$), 둘째, 셀프리더십(A)이 문화적 역량(C)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고($\beta_{CA}=.376, p<.001$), 셋째, 셀프리더십($\beta_{CAB}=.290, p<.001$)과 사회적 유대감($\beta_{CB}=.261, p<.001$)이 문화적 역량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고, $\beta_{CA}>\beta_{CAB}$ 이므로 사회적 유대감은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방법으로 사회적 책임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첫째, 셀프리더십(A)이 사회적 책임감(B)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고($\beta_{BA}=.467, p<.001$), 둘째, 셀프리더십(A)이 문화적 역량(C)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beta_{CA}=.376, p<.001$), 셋째, 셀프리더십($\beta_{CAB}=.182, p<.001$)과

사회적 책임감($\beta_{CB}=.417, p<.001$)이 문화적 역량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고, $\beta_{CA}>\beta_{CAB}$ 이므로 사회적 책임감은 셀프리더십과 문화적 관계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책임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셀프리더십과 문화적 역량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Z=3.09, p<.01$)과 사회적 책임감($Z=4.79, p<.001$)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셀프리더십은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책임감,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주고,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책임감은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주는 부분 매개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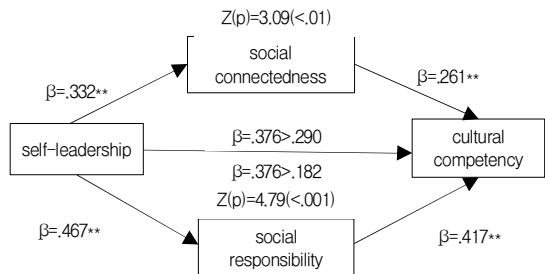


Fig. 1. Mediating effect of social connectedness & social responsibility in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cultural competency(**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문화적역량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책임감의 매개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수준은 7점 만점에 평균 평점 5.27(± 0.69)로 백분율 점수 환산시 75%에 해당되며, 문화적 인식과 문화적 민감성이 문화적 지식과 기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 1, 4학년 대상으로 한 연구[8]은 71.3%, 전 학년 대상으로 한 연구[33]의 63%보다는 문화적 역량수준이 높았다. 이는 본 연구가 3, 4학년 대상으로 하여, 학년이 높을수록 대상자와 의사소통능력, 동료와의 협력관계, 간호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며[8] 자기이해와 더불어 타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임상실습 등으로 타문화 접촉 기회, 관련학습 경험이 많음[33]이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간호사 대상 연구[5]에서는 4.80으로 본 연구보다 낮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져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현직 간호사들보다는 준비생인 간호대학생이 높음으로 설명할 수 있다. 속성별로는 문화적 인식과 문화적 민감성이 문화적 기술과 지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7,33]와 간호사대상 연구[5]에서도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연구[9,11,12]에서는 문화적 기술이 가장 높게 나와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위의 모든 연구에서 문화적 지식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타문화에 대한 건강행위와 신념, 신체적, 생리적 차이, 신체접촉의 의미 등의 문화지식을 포함한 다문화교육을 교과과정 내에서 체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61(± 0.46)이었으며, 행동중심적 전략, 건설적사고 전략, 자연적보상 전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19] 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며, 속성별로는 행동중심적 전략보다 건설적사고 전략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 점은 연구[19]와 같은 결과였다. 간호대학생들이 셀프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건설적사고 전략, 자연적 보상 전략보다는 행동중심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행동중심적 전략은 목표를 설정하여 노력하며, 중요한 성취에 대해 스스로 축하하고 보상하며,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능력[17]으로 간호학과의 임상실습

과정 중 간호과정에서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의 일련 과정에 훈련되어있으므로 볼 수 있다. 건설적사고 전략은 자신의 부정적 신념을 긍정적 사고로 바꾸고, 자연적보상 전략이란 진정한 보람을 찾아 자기결정감과 유능감을 증진시키는 내적 보상을 말한다.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 현장에서 부정적 상황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업무의 힘들, 대상자와 보호자간의 의사소통장애, 간호 지식과 임상현장에서의 차이 등은 간호전문직에 대한 정체성에 부정 영향을 미치며, 이타적 사고와 행동에 익숙한 간호전문직들이 스스로를 위로함에는 익숙치 않아[21] 건설적사고 전략이나 자연적보상 전략 점수가 행동중심적 전략보다 낮음으로 해석된다. 셀프리더십은 학습과 훈련에 의해 성장시킬 수 있으며[17], 연구[19]에서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긍정적 사고 습관과 함께 간호전문직에 대한 만족도,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과정 및 셀프리더십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사회적 유대감은 6점 만점에 4.45(± 0.60)으로 나타났다.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0]의 4.23(± 0.46)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유대감은 소속과 대인관계적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며, 이는 이타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동기를 높이므로 [31] 간호전문직의 특성인 이타주의에 훈련되어 있는 본 연구대상자의 특수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대상자의 사회적 책임감은 6점 만점에 4.42(± 0.59)으로 나타났다. 연구[31]의 3점 만점에 1.58(± 0.46)보다 본 연구가 높게 나왔다. 이는 간호학과 교육과정중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인문사회과학과목을 의무적으로 일정수준 이상 이수토록 함과도 무관치 않다고 본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문화경험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 차이는 외국인 친구 유무($t=2.587, p=.01$)와 외국어능력($t=2.991, p=.003$)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연구[9-12,33]결과와 일치하였다. 외국방문 경험은 방문횟수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연구[7,9,11,33]의 결과를 지지한다. 1개월 이상 해외거주 경험이 있는 사람이 문화적 역량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연구[7,9,11,12]의 결과와 같다. 다문화교육 참여 경험도 유의한 차이가 없어 연구[9,11,12,33]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간호대학에서

교양이나 전공 선택으로 체계적인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함[33]과 관련되며 연구[34]에서는 한국의료인들은 다른 문화에 대해 알지 못하여 시행착오를 겪고, 후진국에 대한 인종차별적 편견을 가지게 되어 다문화 지식이 문화적 상호행위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했다. 따라서 간호대학에서 다문화교육이 전공과목으로 채택되어 단순한 지식전달보다는 임상실습과 같은 직접체험을 포함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문화경험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차이는 연구자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이지만 외국어능력이 매우 높고 외국인 친구가 있는 간호대학생이 자기효능감이 증가되어 문화적 역량이 높다[11]. 외국인 친구는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다른 형태의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되어[5] 타인의 정서와 역할을 대리 경험할 수 있는 공감능력이 향상되고, 이러한 공감능력은 서로의 문화가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수용하는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10].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간호학과 교과과정 중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외국인과의 지속적이며 직접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국제교환 프로그램 및 다문화 동아리활동 및 지역사회 다문화 가족과의 교류, 다문화 교육 등의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문화적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책임감은 문화적 역량과 정적상관관계를 보여 셀프리더십은 문화적 역량에 직접효과와 사회적 유대감과 책임감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도 유의하였다. 즉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고, 사회적 유대감과 책임감을 높여 문화적 역량도 증진시킴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은 문화적 역량을 13.7%의 설명력을 보였고, 사회적 유대감이 매개할 경우 19.4%로 설명력이 증가하였으며, 사회적 책임감이 매개할 경우 27%로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문화적역량에 관한 연구가 없어 제한점이 있지만 자기관리와 내적 동기부여, 내적 보상으로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킴에 초점을 맞춘 셀프리더십은 문화적 역량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의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고[10,11], 셀프리더십이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과 간호업무성과를 높이며[13,18-20] 개인의 직무역할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연구[21]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셀프리더십 훈련이 중요하며, 이를 교과 과정에 포함시켜 확대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사회적 유대감은 셀프리더십과 문화적 역량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었다. 간호사의 자질중 환자 및 보호자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높고, 동료와의 협동적 관계형성과 환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높을 때 문화적 역량이 높게 나타난 연구[8]결과와 같이 셀프리더십 수준이 높은 간호대학생이 사회적 유대감이 높을 때 긍정정서는 높아지고 부정정서를 낮추어[35], 타인에 대한 높은 신뢰감으로 이타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동기를 높여[31] 문화적 역량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보간호사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기효능감을 촉진시켜 역할수행과 대인관계에 도움을 주는 멘토링프로그램[36]도 사회적 유대감을 높여 문화적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증진 방안으로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교과과정 운영 및 멘토링 프로그램, 토대상담과 같은 사회적 지지체계 확립 등 사회적 유대감증진 전략도 중요할 것이다.

사회적 책임감도 셀프리더십과 문화적 역량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으며, 셀프리더십보다 더 큰 효과를 보여주었다. 셀프리더십은 조직시민행동(의무도 아니고 보상도 없지만, 타인이나 조직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37] 사회적 책임감은 이타주의에 영향을 미친 연구[31]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책임감은 이타적 행동을 기반으로 사회적 규칙과 규범을 준수하고 타인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의 이익을 추구하고 보살피려는 개인적 특성으로 친사회적 행동과 도덕적 시민행동을 동기화한다[38]. 사회적 책임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책임감, 친사회적 행동, 공감, 이타주의, 감정조절, 사회적 정체성 확립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여야 하며[28], 학교교육과정 내에서보다는 수업의 활동 즉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지역사회 활동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39] 다양한 사회적 활동경험은 타인에 대한 이타적 성향을 육성하며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하여 리더십과 사회적 책임감을 향상시키며[38] 개인적 역량도 긍정적으로 발달시킨다[40]. 간호대학생이 셀프리더십을 갖추고 타인과 사회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책임감을 갖추었을 때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대상자를 이해하고 돌보며, 간호기술을 수행하는 문화적 역량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 봉사활동 및 동아리활동, 지역사회에 관심을

유도하는 교외활동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 할 수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 역량과 셀프리더십,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책임감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없는 실정에서 본 연구는 다문화대상자가 증가하는 임상현장에서 전문적 업무 처리능력을 발휘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간호대학생이 문화적 역량 증진이라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리더로서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긍정적 사고와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셀프리더십과 타인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유대감과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사회적 책임감을 발달시키고 개발시킴이 필요함을 밝힌데 간호학적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책임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과과정 개발과 교외활동 프로그램, 외국어능력 증진 프로그램과 외국인과의 지속적 교류 프로그램, 다문화 교육 등 문화적 인식,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기술과 지식등 문화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나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문화경험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차이는 외국어 능력이 매우 높을수록, 외국인 친구가 있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다문화 교육 경험유무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유대감($r=.332$), 사회적 책임감($r=.467$)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셀프리더십($r=.376$), 사회적 유대감($r=.357$), 사회적 책임감($r=.502$)도 문화적 역량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문화적 역량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책임감은 부분매개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 간호 대학생을 편의 추출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으나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셀프리더십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책임감등의 심리 사회적 특성을 발달시키고 개발시킴이 필요함을 밝힌데 의의가 있다하겠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전체학년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셀프리더십,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책임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심리사회적 특징을 나타내는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계속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I. S. No, S. H. Chun, M. H. Lee, G. H. Lee, J. M. Jang & J. H. Chun. (2012). *Multicultural Society & Nursing*, Seoul. : Hyunmoonsa.
- [2] Korea Immigration Service. (2016). *The Annual Report of the statistical data on immigration and foreigner-related matters*. Gwacheon. KIS.
- [3] I. H. Seo. (2015). *Foreigner patient's attracted result*. MOHW (Online). <http://www.mohw.go.kr>
- [4] Y. S. Kim-Godwin, P. N. Clarke & L. Barton. (2001). A model for the delivery of culturally competent community car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5(6), 918-925.
- [5] D. H. Chae. (2013). *Development of a cultural competence scale for Korean nurses*.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6] S. H. Kim. (2013).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 for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for Nursing Students and its Effec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4), 580-593.
- [7] I. S. Lee & J. Y. Cho. (2014). A study on the cultural competency and demand for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among nursing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1), 283-290.
- [8] K. S. Choi et al.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Competency and the Importance of Nurses' Qualities Perceived by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27(2), 163-172.
- [9] D. H. Kim & S. E. Kim. (2013). Cultural competence and Factors Influencing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2(3), 159-168.
- [10] Y. S. Seo & Y. C. Kwon. (2014). Factors Influencing to the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6), 415-423.

- [11] S. Y. Yang. (2014). Th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of Cultural Exchanges, Self-efficacy, and Cultur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tents*, 14(7), 334-344.
- [12] S. Y. Yang, H. N. Lim & J. H. Lee. (2013). Th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Competency and Empathy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 19(2), 183-193.
- [13] M. K. Jang & H. Y. Kim. (2018). A Convergence Study on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Self-esteem on Nursing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2), 51-59. DOI : 10.15207/JKCS.2018.9.2.051
- [14] H. J. Won & S. H. Cho. (2013). A Review of Research on Self-leadership in Nurses'. *J Acad Nurs Adm*, 19(3), 382-393.
- [15] F. Fiedler & J. Garcia. (1987). *New approaches to effective leadership: Cognitive resource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New York : John Wiley & Sons.
- [16] J. Kim. (2008). *Relation between factor of ego-state and self-leadership*.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17] J. D. Houghton & C. P. Neck. (2002).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self-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7(8), 672-691.
- [18] S. I. Im, J. Park & H. S. Kim. (2012). The Effects of Nurse's Communication and Self-Leadership on Nursing Performance. *Korean J Occup Health Nurs*, 21(3), 274-282.
- [19] K. N. Kwon. (2014). *Clinical Compet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in a City*.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20] Y. H. Han & Y. R. Park. (2013).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Job Involvement on Clinical Competence in General Hospit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9(4), 462-469.
- [21] S. Y. Kim, E. K. Kim, B. Kim & E. Lee. (2016). Influence of Nurses' Self-leadership on Individual and Team Members' Work Role Performance. *J Korean Acad Nurs*, 46(3), 338-348.
- [22] Y. H. Yeom et al. (2014). *Nursing Management*, Paju : Soomoosa.
- [23] J. H. Yeo, M. Y. Hyun, E. J. Lee & E. O. Park (2005). Psychosocial Maturity,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Undergraduate Students. *J Korean Acad Psychiatry Ment Health Nurs*, 14(1), 73-81.
- [24] B. C. Min, S. W. Lim, K. K. Han & H. S. Rhee. (2013). The influence factors and effects of self-leadership : focusing on members of the hospitals. *J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23(1), 66-77.
- [25] R. M. Lee & S. B. Robbins.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nnectedness and anxiety, self-esteem, and social ident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338-345.
- [26] S. J. Lee, Z. Zhang & Y. R. Kim (2016). The relations between Chinese Students' Cultural Intelligence and School Adjustment in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onnectedness. *Korean Education Inquiry*, 34(2), 229-252.
- [27] D. E. Conrad & D. Hedin. (1981). National assessment of experiential education: Summary and implications. *Journal of Experiential Education*, 4, 6-20.
- [28] L. Wray-Lake & A. K. Syvertsen. (2011). The Developmental Roots of Social responsibility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In C. A. Flanagan & B. D. Christens (Eds.), *Youth civic development: Work at the cutting edge.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34, 11 - 25.
- [29] C. Lee. (2010).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Altruism in Youth Counseling. *The journal of youth Counselling*, 9, 158-188.
- [30] Y. K. Shin. (2009).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RSLQ) for Korean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Hoseo University, Cheonan.
- [31] S. Lee.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Gratitude and Altruistic behavior:Focusing on Social Connectedness and Social Responsibility*.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Seoul.
- [32]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e-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33] S. Y. Han. (2016). Factors Influencing to the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4), 73-86.
- [34] E. Y. Jung & J. H. Kong. (2018). Convergence Study on Attitude toward Migrant Wives, Cultural Knowledge and Cultural Nursing Behavior by Nurs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5), 281-290. DOI : 10.15207/JKCS.2018.9.5.281
- [35] E. Yoon, R. M. Lee & M. Goh. (2008) Acculturation, Social connected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4(3), 246-255.

- [36] M. L. Park & M. J. Lee. (2018). Effects of Mentoring Program's Development about New Nurse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1), 43-51.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18.8.1.043>
- [37] G. Y. Kim. (2011). *A Study on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Master's thesis. Korea Aerospace University, Goyang.
- [38] H. Kim. (2013). How do youth and Their Parents' Social Activities Influenc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Youth?,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0(4), 161-178.
- [39] S. F. Hamilton & I. M. Fenzel. (1988). The impact of volunteer experience on adolescent social development : evidence of program effec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3, 65-80.
- [40] F. Newmann & R. Rutter. (1983). *The effects of high school community service programs of students social development: Final report*. Medison : University of Wisconsin,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권 중 선(Kwon, Jong Sun)

[정회원]



- 1979년 2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학사
- 2004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교육 석사
- 2013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강의전담 조교수

- 관심분야 : 극복력, 청소년, 정신건강, 전문직역량
- E-Mail : kwonjs57@dankook.ac.kr